

# 가을장마·폭염에 노지감귤 열과 피해

### 농민 “5~6년새 최악... 심한 나무는 30%나 발생” 농협, 최근 보험지급 대상으로 피해규모 파악중

최근 이어지는 가을장마와 폭염이 겹치면서 애써 가꾼 노지감귤과 레드향에서의 열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감귤 주생산지인 서귀포시 남원읍과 중문동 등을 중심으로 많은 나무 한그루당 30% 가량의 열과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열과는 토양의 수분 함량이나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겹집에 착색이 되기 시작하는 8월 이후에 감귤 내부에서 세포가 성장하면서 겹집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쪼개지면서 발생한다.

31일 서귀포시 남원읍 효돈동 소재 한 감귤원을 확인한 결과, 도로변에서도 열과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 오래된 열과에서는 부패가 진행되면서 주변 열과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A(49·효돈동)씨는 “하우스감귤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최근 길어지는 가을장마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노지감귤에서의 열과현상이 심각하다”며 “모든 나무에서 열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발생한 곳은 나무당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100개에 이를 정도”라고 말했다.

서귀포지역 농협 관계자도 “최근

5~6년 사이에 노지감귤 열과현상이 가장 심한 것 같다”며 “보험 손해평가자들이 과수원을 찾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협 관계자에 의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열과현상에 의한 보장은 노지감귤은 가능하지만 하우스감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지감

귤은 자연적 비닐씨와 폭염 등에 의한 것이고, 하우스재배는 농가에서 물관리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규정상 보상은 전체 과일의 20% 이상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한다.

제주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8월 중순부터 노지감귤에서의 열과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이나 나무 상황에 따라 피해가 다르다”며 “열과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다른 과실의 비대해져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따내는 것보다는 부

패 직전에 처리하는게 낫다”고 밝혔다. 이어 “9월에도 열과 발생이 있을 수 있어 과원에 대한 철저한 배수관리와 부패과 발생 억제를 위한 방제 및 칼슘제 살포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8월 한달간 비닐씨는 한달중 절반이 넘는 18일(58.1%)로 지역별 강수량은 제주시 227.8mm, 서귀포시 318.4mm이다. 7월에도 제주시 247.1mm, 서귀포시 249.9mm의 비가 내렸다. 백귀타자



가을장마와 폭염이 겹치면서 노지감귤 열과현상이 심하게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희민기자

# 비자림로 공사 찬반갈등 심화

### 생산·구좌 이장단협의회 “도로개설 추진해야” 반대단체 “제주도의회 환경훼손·갈등 멈춰라”

3년 넘게 재개와 중지를 반복하고 있는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두고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생산읍·구좌읍 이장단협의회는 31일 오전 9시30분쯤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삶의 버팀목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환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개발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편협한 환경운동 활동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오래 전부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추진된 것이다”며 “도정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조속한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단체도 같은 시간 도의회 앞

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반대단체는 결의안에 동의한 도의원 26명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도의회는 환경훼손과 주민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지난 30일 도의회를 찾아 비자림로 결의안 폐기 촉구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제주제2공항항행저지비상회의도 논평을 내고 “반환경적 개발 독재로의 회귀를 선택한 도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성토했기도 했다.

한편 비자림로(대천~송당)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교로 입구까지 2.9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는 사업이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학급당 학생수 20인 이하로...”

###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도의회교육위 조속 통과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가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열린 제398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10만명이 국회 입법청원에 참여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상한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교육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한 학생 한명 한명의 성장을 방지한 해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심각해져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넘어 위드코로나 시대로 진행해 가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으로 나

아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2020년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이 넘는 학급의 비율은 초등학교 72.3%, 중학교 84.3%, 일반계 고등학교 83.7%”라며 “이 중 31명이 넘는 학급은 무려 1만8146학급으로 전체학급의 8.4%에 배치된 학생들이 초과밀학급에서 옆 친구들과 부대끼며 학습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9월 7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 국회, 교육부, 기획재정부, 전국 시·도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 코로나시국 도내 골프장 ‘표정관리’

### 내장객 1~7월 165만여명... 올해 작년 최대 기록 경신 전망

코로나19 시국 대부분의 산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제주도내 골프업계는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골프장 내장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120만7552명보다 37.3% 증가한 165만7559명(도와·외국인 102만4873명, 도민 63만268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2016년 194만5684명, 2017년 216만7510명, 2018년 190만5864명, 2019년 209만1504명, 2020년 239만9511명 등이다.

특히 지난해 제주 골프장 내장객

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7월까지 도내 골프장 내장객 16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9월)보다 2개월 가량 빠른 수준이다.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올해 5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내장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지난해에도 1~7월 내장객이 120만7552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벌써 160만명을 넘기면서 지난해 골프장 내장객 역대 최고치를 1년만에 다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도내 골프장이 호황을 맞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원정 골프가 불가능하

게 됨에 따라 국내 수요가 제주로 몰린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또한 MZ세대가 골프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도내 골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전국 각 지역에서 손님들이 골프장을 찾아주고 있다”면서 “이는 제주도내 골프장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감염 확산 우려를 해소한 뒤 골프장 운영·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기자 ty9456@ihalla.com

# “빌려간 돈 왜 안갚아...”

### 채무자 감금 중국인 4명 체포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이틀간 감금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서는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중국인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밤 11시쯤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 있던 채무자 A(중국)씨를 찾아가 빌려간 돈 1000만원을 갚으라며 약 이틀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30일 밤 10시쯤 피의자 일당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의 채무관계를 알아보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여러분의 業(업)을! UP(업)! 시켜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제주도내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구인난 해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2021년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조사' 시행안내

- **조사목적** : 지역 산업계의 인력 니즈파악 및 2021년 제주지역 인력양성계획 수립  
· 기업과 수요자의 훈련수요를 바탕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조사기간** : 2021년 8월 ~ 10월(3개월간)
- **조사대상** : 상시 종사자수 5인 이상 제주지역 기업체(1,000여개 업체)
- **주요 조사내용** : 기술·부서별 인력 및 필요채용 현황  
· 취업예정자 및 재직자 훈련 수요 파악
- **조사방법** : 사업체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기업체 대표, 인사담당, 기술부서장 등)
- **조사결과** : 2022년 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무상지원)

### 2021년 하반기 무료 교육훈련 안내

센터명	교육명	정원(명)	교육시간	홈페이지 및 연락처
제주관광대학	식품 위생관리 및 공정관리 실무 직무능력 향상과정	20	2월 16시간 (9.24~)	jtc.jtu.ac.kr (064-754-5860)
	건축설계 및 3D프린팅 직무능력 향상과정	20	2월 16시간 (9.25~)	
	SNS를 활용한 직무능력 향상과정_중장년ICT(만45세이상 재직자 대상)	20	2월 16시간 (10.1~)	
제주라라대학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실무 향상과정	15	2월 16시간 (9.25~)	chuhrd.kr (064-741-6726)
	제주 슬로우푸드 메뉴개발 향상과정	15	2월 16시간 (9.25~)	
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특수용접 고급과정	15	2월 16시간 (9.11~)	jeju.kopo.ac.kr (064-757-7157)

※ 이외 많은 무료교육을 준비 중에 있으니 우선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업인 및 취업희망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TEL. 757-2165 FAX. 757-2168 | 홈페이지. http://jejuhrd.or.kr